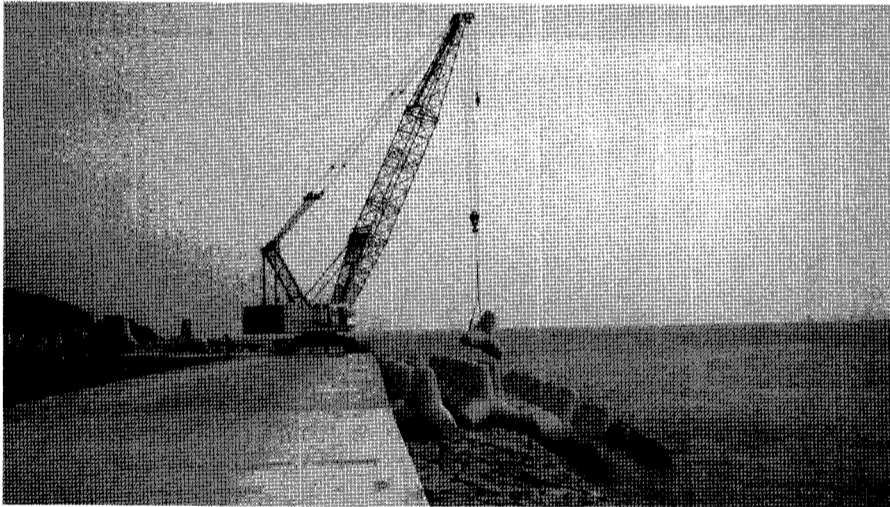


올해 상반기, 어항공사 순조 계획대비 129% 달성, 맥전포항 완공



상반기 어항시설공사가 지난달 정부의 항만·어항건설 지방업체 확대도입 추진과 더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어항건설 공사사업은 총 1,582억여원을 투입, 인천 울도항 등 59개 국가어항에서 62건의 공사를 실시하고 관광복합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.

이들 공사의 상반기까지 공정율은 지난 5월 30일 맥전포항을 조기 완공, 어란진항 계획대비 362% 달성 등 전체 공사가 계획대비 129%대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청별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청이 3개소에 293%의 높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

부산청 1개소 154%, 마산청 9개소 146%, 울산청 2개소 251%, 여수청 8개소 91%, 동해청 8개소 168%, 군산청 2개소 80%, 목포청 10개소 144%, 포항청 9개소 117%,

제주청 2개소 120%, 대산청 8개소 107%대의 계획대비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.

일부 어항 공사의 부진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착수 예정인 경우, 방파제 공사 준비로 인해 시간이 지연된 경우, 도로 이용의 불편으로 공사를 방해 받은 경우(임시접안시설 설치 건의), 공사구역 내 어구 등 지장물이 야적되어 공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로 조사되었다.

한편 전체 계약액은 예산 1,583억원 중 도급, 관급을 포함 60% 수준인 9백4십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'올해 태풍기 이전에 주요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올해 목표 공정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'고 밝혔다.

공 고

제10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

- 응모 자격 : 사진애호가(제한없음)
- 출품 규격 : 11"×14" 컬러사진
- 출품 기간 : 9.26~10.4
- 주 제 :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(내수면 포함)
어촌어항어장 전경
해양문화, 어촌관광 등과 관련된 미발표작
- 자세한 내용 : 한국어항협회 사이트(www.fipa.or.kr)
- 문 의 : 한국어항협회 기술홍보실
(02)3673-2854, bis@fipa.or.kr